

# 문학관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구성요소에 대한 제언\*

## A Suggestion on the Components of Manuscrip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Literary Museums

조 은 비 (Eunbee Jo)\*\*

이 성 신 (Seongsin Lee)\*\*\*

### 초 록

본 연구는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구성요소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문학관의 실제 수집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문학관이 수집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수집정책의 구성 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이 제시한 구성요소와 하위요소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국내외 문학관의 수집정책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사례로는 세계여성문학관의 자료 선정 내규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참조하였으며, 국외 문학관은 14개의 영미권 문학관을 대상으로 수집정책 원문을 확보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문학관의 수집정책 원문의 구성요소를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27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5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문학관의 수집정책 수립 시 채택할 수 있는 11개의 기본 요소 및 14개의 선택요소를 제안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omponents of manuscrip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Korean literary museum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onents of manuscrip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internal and external literary museums. As the examples of internal literary museums, the private rules of material selection of World Women's Literature Center an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have been studied. As the examples of external literary museums, 14 origin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from British and American literary museums have been analyze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11 basic elements and 14 selective elements were proposed for the manuscrip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Korean literary museums.

키워드: 문학관, 수집정책,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문학관 수집정책

Literary Museum,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Manuscrip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Literary Museum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을 축약·발전시킨 논문임.

\*\* 경북대학교 기록학과 대학원(zombing1@naver.com)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leess@k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8년 2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2월 2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209-231,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1.20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학진흥법』은 문학을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이며 ‘인간 삶의 이야기’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문화의 가장 기초적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나운지 2016). 작품과 작가를 둘러싼 문학기록은 좁게는 지역, 넓게는 한 국가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결과물이며 격동과 고난을 겪은 민족사의 발자취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문학기록을 역사를 관통하는 한국문화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작가별 또는 지역별로 문학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십여 년이 흐른 현재에는 106개의 문학관이 운영 중이며 ‘국립한글박물관’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학관은 모(母) 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스와 달리 수집형 아카이브즈(collective archives) 즉, 매뉴스크립트 수집기관에 가까운 특성을 지닌다. 매뉴스크립트 기관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해 다양한 수집 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관의 특성에 맞는 수집정책을 설정하고 그 정책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학관이 매뉴스크립트 기관으로서 수집하는 문학기록은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작가 및 작품을 둘러싼 모든 기록을 포함한다. 문학작품과 작품관련 기록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예술적 가치는 물론 당대 사회에 대한 작가들의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작가의 생애 및 사회 활동기록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과 그때 당시 시

대정신을 살펴볼 수도 있다. 문학기록은 기록 관리의 측면에서 일반 공공기록물보다 까다로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문학기록이 다양한 매체와 형태로 파편화된 매뉴스크립트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작가의 생애가 총체적으로 녹아 있는 기록이기 때문이다(양서희 2011). 이러한 문학기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문학관 수집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문학관은 수집정책 수립으로 기관의 사명에 입각한 적극적 수집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며, 수집활동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기관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관이 문학작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작가의 업적과 문학적 성과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명에 따라 명확하고 뚜렷한 수집방향을 설정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집활동을 하는 기관은 매우 드물다. 문학관의 수집정책은 기관 및 문학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문학관 건립 초기단계부터 적용되어 기관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구성요소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문학관의 실제 수집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문학관이 수집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수집정책의 구성 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학관은 대륙별로 그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과 유럽은 개별 작가를 기리는 개인문학관이 다수이며, 중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권은 개인 문학관과 함께 특정 지역이나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문학관(국·공립 또는 지역 문학관)이 문학기록 관리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학관은 크게 개인문

학관과 지역문학관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개인문학관은 작가 한 개인의 작품과 그의 생애를 기리는 문학관이며, 지역문학관은 한 지역 혹은 특정 시기 내 다수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작품과 생애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문학관이다. 개인문학관과 지역문학관은 그 규모와 운영방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으나 문학관이 수집하는 문학기록의 유형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다. 문학기록 수집대상이 되는 인원(人員)에서 차이가 있을 뿐 수집대상 문학기록의 유형은 작가의 작품, 작품을 둘러싼 기록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문학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문학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활동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내 문학관의 수집정책에 관련된 연구들은 특정 개별사례를 중심으로 수집정책을 제시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는 문학관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역 혹은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써 문학기록 수집에 대한 보편성을 담보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문학기록 수집 및 수집정책 수립의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각 문학관은 본 연구의 제언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수집정책을 구축함으로써 유연하고 개방적인 수집정책 수립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문학관을 위한 수집정책 구성요소의 제언이라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매뉴스크립트 수집기관의 수집정책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동아시아 문학관과 비교하여 국내 문학관과 유형이 유사한 영미권 문학관을 중심으로 국외문학관 수집정책을 확보하여 분석한다.

셋째, 국내 수집정책 사례 분석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의 부속시설인 세계여성문학관의 자료수집 내규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학주제의 집서수준 및 장서개발 세부지침을 분석한다.

넷째, 문헌연구와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수집정책 구성요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문학관이 수집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기본요소'와 '선택요소'로 구분하여 제언한다.

## 1.3 선행연구

본 연구의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수집정책, 문학관,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을 다룬 연구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수집정책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한수연(2005)은 2004년 기준 콜롬비아 대학의 『Archives and Manuscript Collection』에 수록된 476개의 기관 중 53개 기관의 56개 아카이브즈의 기록물 수집정책을 분석하였다. 기록물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기본적 구성요소와 보완적 구성요소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구성요소의 작성방안을 예시와 함께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문학관에 대한 연구는 문학관의 전반적인 실태와 개선방안, 문학기록 관리방안, 설립방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며

문학기록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유은지(2007)는 문학관을 활용한 문학 진흥 방안 연구에서 문학관의 기능과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역할 확대를 꾀함으로써 지역 문학의 진흥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으며 양서희(2011)는 지역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한 문학 기록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문학기록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해 수집, 관리, 활용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기록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명호(2015)는 라키비움 관점에서 국내 문학관의 기능적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국내의 문학관을 지역 내 작가와 작품 중심의 귀중도서, 육필원고 등을 주력으로 관리하는 대표적 문화기관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이 인식을 바탕으로 라키비움의 기능적 관점에서 문학관의 기능적 측면을 파악하고, 문학관이 라키비움 논의에 포함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핵심사항에 대하여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메뉴스크립트 컬렉션 수집정책을 다룬 연구는 주로 특정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영산(2005)은 메뉴스크립트 수집절차를 체계화 하는 방안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메뉴스크립트의 수집과정을 표준화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수집과정을 수집예비단계, 수집단계, 수집방법에 따른 수집과정의 세 단계로 표준화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윤희(2006)는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수집정책에 대하여 김달진문학관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수집연구 분야 중 '수집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다양한 사례의 구성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사명 및 권한 진술', '수집분야 및 범주의 정의', '수집 초점 및 우선순위 결정',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처리'로 구분되는 김달진문학관 수집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신윤희의 연구는 수집정책 구성요소에 대한 문헌연구에 한정하여 실제 사례를 분석하지 못하였고, 개인문학관으로 한정하였다는 데 한계점이 있다.

그간의 '문학관'에 대한 연구는 지역문학관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문학관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였다. 또 지역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한 문학 기록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는 수집을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수집정책'의 측면에서는 기록관 또는 메뉴스크립트 수집기관의 수집정책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 아카이브즈 전반을 대상으로 수집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문학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문학관을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수집기관으로 인식하고 수집정책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특정 개인 문학관을 중심으로 개별 사례에 한정하여 수집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문학관의 정의 및 유형

『문학진흥법』 2조(정의)에 따르면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일

킨다. 국제문학관위원회 ICLM(International Committee for Literary Museums)에서는 문학관을 '문학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문학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여겨지는 문학을 다루는 특정한 기관'이자 '박물관학과 관련된 범(museographical codes)을 통해 문학을 수집, 보존, 전승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문학관은 도서 형태의 작품을 보존·활용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기능과 유사하며,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책들이나 각종 유품들을 전시한다는 의미에서는 박물관과 그 기능이 같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또한 문학관에서 다루는 문인들의 일대기나 집필 과정을 시각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학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ICLM에서는 문학관의 유형을 크게 개인문학관(Writers museums), 일반문학관(General literary museums), 문학공원(Literary landscapes or Eco-museums)으로 구분한다. 개인문학관은 주로 작가가 태어나고 성장한 곳, 또는 전 생애동안 머물렀던 곳, 사망한 곳이나 작가에게 헌정된 곳을 활용한 공간이다. 일반문학관은 지역, 특정 장르의 문학 또는 특정 언어와 관련된 문학을 다루거나 더 나아가 장서나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을 다루는 문학관을 의미한다. 문학공원은 영미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작가와 관련되거나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한 지역, 지물 등과 관련된 특정 지역 전체를 문화유산으로서 관리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문학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개인, 지자체, 문화단체가 설립한 문학관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단체가 위탁운영을 맡기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공·사립 문학관 현황(2017. 3)에 따르면 국내 운영 중인 문학관은 106개소로 공립 64개, 사립 40개이며 이 중 한국문학관 협회에 등록된 문학관은 72곳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문학관을 형태적 측면에서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1>과 같이 작가 및 작품형, 지역형, 테마형, 컬렉션형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작가 및 작품형' 문학관은 개인 또는 여러 작가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작가 정신을 계승하거나 작가의 특정 작품을 보존·전시·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관이다.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뛰어난 작품을 기념하고, 작품이 지니는 공간성에 중점을 두고 현실의 공간을 기반으로 작품을 복원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역형' 문학관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문학을 정리·보존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테마형' 문학관은 특정 테마·주제, 시기 등을 중심으로 문학기록을 수집·관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된다. 특정 지역, 작가 및 작품, 테마와 무관하게 문학사적 가치와 모든 문학의 소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문학관은 '컬렉션형' 문학관으로 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한 원고, 작품이나 문인들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 2.2 메뉴스크립트 수집정책

문학기록의 수집은 문학관이 수행해야 하는 일차적 작업인 동시에 문학기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과정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

〈표 1〉 문학관의 유형

유형	목적	해당 문학관 <sup>1)</sup>
작가 및 작품형 (42개)	개인 또는 여러 작가의 정신 계승, 특정 작품의 보존·전시·활용	구상문학관, 김달진문학관, 김삿갓문학관, 김유정문학촌, 노작홍사옹문학관, 동리목월문학관, 만해기념관, 미당시문학관, 박경리문학공원, 박인환문학관, 박재삼문학관, 백호문학관, 석정문학관, 신동엽문학관, 오영수문학관, 오장환문학관, 요산문학관, 원서문학관, 율하이태극문학관, 이병주문학관, 이원수문학관, 이육사문학관, 이주홍문학관, 이효석문학관, 정지용문학관, 조병화문학관, 조태일시문학기념관, 지촌문학관, 지훈문학관, 채만식문학관, 청마문학관, 최명희문학관, 태백산맥문학관, 토지문학관, 평사리문학관, 한국가사문학관, 한국시마을문학관, 한국시조문학관, 한무숙문학관, 혼불문학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지역형 (14개)	특정 지역의 문학 정리·보존 및 이를 통한 지역의 역사와 특성 전파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경남문학관, 대구문학관, 대전문학관,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마산문학관, 목포문학관, 순천문학관, 전북문학관, 제주문학의 집, 지리산문학관, 천관문학관, 충남문학관, 충주문학관
테마형 (12개)	특정 시대·테마·주제에 관련된 문학기록의 수집·관리	농민문학관, 보훈문학관, 山史현대시100년관, 삼성출판박물관, 세계여성문학관, 시조문학관, 아리랑문학관, 추리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 한국시문학관, 한국시집박물관, 한국현대문학관
컬렉션형 (4개)	다양한 주제의 소장 자료 보존 및 기획전시 또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학의집·서울, 영인문학관, 잔야문학박물관, 청류계수목문학관

요한 업무이다. 문학기록의 전시체계와 기록을 활용한 문학서비스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 기능은 수집된 기록물의 범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문학관의 역량은 문학기록의 수집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관형 아카이브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록과 다르게 문화예술분야는 대체적으로 수집형 아카이브가 대부분이며 메뉴스크립트 보존소라는 특성을 지닌다. 문학관은 특정 기준이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집한 인위적 기록의 집합체인 메뉴스크립트 관리 기관으로서 다양한 조직과 개인으로부터 문학기록을 입수하게 된다.

기록학용어사전(2008)에 따르면 수집정책은 보존기록관에서의 기록 평가·선별 절차의 토대로서, 수집을 통한 기록화의 목표 및 그에 따

른 실천적 과제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천명될 사실이며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 수집의 범위 및 우선순위에 관한 분야별 설계, 수집 지침 및 제한 사항, 타 기록관이나 기록 소장자와의 협력방향, 제적에 관한 성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수집정책이란 특정 보존소가 수집범위를 결정하고 수집해야 할 자료의 주제와 형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한 서면 진술이다(오항녕 2005). 이러한 수집정책은 기관의 소장물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그 활용에 있어서 일정한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기관은 이러한 수집정책을 통하여 기관에 필요한 기록을 입수하고, 조직적으로 컬렉션을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정책의 수립은 선별 및 평가의 최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집정책은 불특정 장소에 다수로 산재해

1) 해당 문학관은 2015 한국 문학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무엇을, 왜, 어떠한 절차로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 또한 단순히 수집해야 할 것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 전반적인 윤곽을 그리는 데에도 유용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집정책은 기록물의 입수를 위한 내부 규정의 의미를 넘어 기관의 수집·관리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수집정책은 일반적으로 기록관리자나 실제 수집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으로써 그 범위가 구체적이다. 수집정책은 기관의 사명과 역할, 자원, 수집과 관련한 내외적 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집될 기록의 유형이나 잠재성, 가치, 활용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조용성 2009).

수집의 일차적 목표는 기관의 소장기록을 개발하여 기존 소장기록과 유기적인 컬렉션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기록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수집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외부적으로는 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로부터 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수집 활동의 혼란을 줄이는 구체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수집정책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째, 기관의 정체성과 특성을 밝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둘째, 기관의 평가·선별 결정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잠재적 수집 집단을 특정 하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 기관이 원하지 않는 기록물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다섯째, 다른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하여 이미 수집되어 있는 기록을 다

시 수집하려는 불필요한 노력이나 타 기관과의 소모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다(조용성 2009).

문학관에서 수집정책의 수립은 일차적으로 기관 내 수집업무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문학관의 경우 기관차원의 수집과 더불어 외부의 기증에 의한 수집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명문화된 수집정책은 문학관이 수집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기증을 막고 소유권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3. 메뉴스크립트 수집정책 비교 분석

이 하에서는 메뉴스크립트 수집정책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 성과가 있는 햄, 슈워트리히와 리드, 필립스, 디얼스타인 등의 연구자들이 메뉴스크립트 기관의 수집정책을 위해 제시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위 연구자들은 수집절차 및 수집정책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메뉴스크립트 수집기관의 수집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문학관의 수집정책 사례분석에 앞서 연구자들의 이론을 분석하는 것은 문학관이 메뉴스크립트 기관으로서 수집정책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어떤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 3.1 햄, 슈워트리히와 리드, 필립스, 디얼스타인의 수집정책 비교

햄(Gerald F. Ham)은 모든 수집정책에 공

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다섯 가지 기본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험이 제시한 수집정책 구성요소는 '보존소 사명 및 목적에 대한 진술문', '수집 범위와 초점 설계(수집분야)', '수집지침(우선순위와 제한)', '타 기관 또는 개인소장자와의 협력', '처분'이다.

슈위트리히와 리드(Anne-Marie Schwirtlich and Barbara Reed)는 수집정책의 목적 제시부터 수집정책의 적용까지 수집절차 관리의 일환으로 9개의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필립스(Faye Phillips)는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위한 수집정책 모델을 제안하면서 수집정책에 9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디얼스타인(Bruce W. Dearstyn)은 수집정책이 프로그램의 성숙도와 책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정의하면서 수집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역사 기관들의 역사기록 프로그램 관리를 주제로 한 저서에서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로 기관의 사명과 비전 진술, 관심분야의 주제 및 지리적 위치, 지원되는 활동의 유형, 수집된 역사 기록의 종류, 의

사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기준, 중요도가 낮은 우선순위 및 예외사항을 제시하였다.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요소들을 비롯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한 요소들을 통해 수집정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요소와 기관의 재량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선택요소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우선 각각의 연구자들이 사용한 용어 및 표현의 차이를 고려하여 동일한 주제의 요소끼리 분류하였고, 그 결과 <표 2>와 같이 '기관의 사명 및 목적 진술', '법적권한 진술', '수집범위의 명확화', '수집 우선순위 및 제한사항', '수집 컬렉션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진술', '수집 자료의 접근 및 이용자 진술', '수집의 조건', '다른 기관과의 협력', '수집 절차', '처분', '수집정책 검토 및 평가', '소장 컬렉션 진술', '의사결정 기준', '용어의 정의', '컬렉션 공유'에 이르는 총 15개의 요소로 정리될 수 있었다.

정리된 15개의 수집정책 구성요소는 <표 3>과 같이 '개요', '컬렉션', '수집활동', '처분활동', '관리 및 운영 활동'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연구자별 수집정책 구성요소

연구자		험	슈위트리히&리드	필립스	디얼스타인
1	기관의 사명 및 목적 진술	보존소 사명 및 목적에 대한 진술문	기관 및 아카이브즈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일반적 진술	기관 또는 컬렉션의 목적 진술	사명 및 비전 진술
2	법적권한 진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권한 진술		
3	수집 범위의 명확화	수집 범위와 초점 설계: 수집분야	수집초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		관심분야의 주제 및 지리적 위치
4	수집우선순위 및 제한사항	수집지침: 우선순위 및 제한	향후 5-10년 수집우선순위에 대한 진술	수집의 우선순위 및 한계	중요도가 낮은 우선순위 및 예외사항



구성요소	연구자	햄	슈위트리히&리드	필립스	디얼스타인
5	수집컬렉션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진술			수집된 컬렉션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유형	지원되는 활동의 유형
6	수집자료의 접근 및 이용자 진술		잠재적 수집을 위해 자료에 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컬렉션 이용자	
7	수집의 조건		자료가 수집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상태 및 조건에 대한 일반적 기술		
8	다른 기관과의 협력	타 기관 또는 개인소장자와의 협력		수집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	
9	수집절차		자료 수집방법에 대한 설명	수집정책과 정책의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	
10	처분	처분	불필요한 자료의 재검토와 매각에 대한 일반적 기술	처분지침에 대한 진술	
11	수집정책 검토 및 평가			컬렉션 개발의 검토와 수집정책의 재검토를 위한 절차	
12	소장컬렉션 진술				수집된 역사기록의 종류
13	의사결정 기준				의사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기준
14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15	컬렉션 공유			자료공유정책에 대한 진술	

<표 3> 연구자별 수집정책 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주제별 구성요소

	주제	구성요소
1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사명 및 목적 진술</li> <li>• 법적권한 진술</li> <li>• 용어의 정의</li> </ul>
2	컬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 컬렉션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진술</li> <li>• 수집 자료의 접근 및 이용자 진술</li> <li>• 소장 컬렉션 진술</li> <li>• 컬렉션 공유</li> </ul>
3	수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 범위의 명확화</li> <li>• 수집 우선순위 및 제한사항</li> <li>• 수집의 조건</li> <li>• 수집절차</li> </ul>
4	처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li> </ul>
5	관리 및 운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기관과의 협력</li> <li>• 수집정책 검토 및 평가</li> <li>• 의사결정 기준</li> </ul>

## 4. 국내외 문학관 수집정책 비교 분석

### 4.1 국내문학관의 수집정책

국내에서 문학기록의 수집정책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부속시설인 세계여성문학관의 자료수집 내규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이 있다.

우선, 세계여성문학관은 세계 여성문인의 자료를 수집·개발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세계 여

성문학 연구센터로 4만 3천여 권의 장서와 학술지, 전자정보, 멀티미디어 자료, 친필원고, 애장품, 전시회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세계여성문학관에서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규는 2000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다음의 여덟 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자료의 구입, 4) 복본 구입, 5) 자료의 수증, 6) 수증자료의 폐기, 7) 수증자료의 이관, 8) 기타.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4> 국립중앙도서관 문학주제의 집서수준 및 장서개발 세부지침

집서수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학, 중국문학, 일본문학 및 기타 아시아문학, 영미문학, 독일문학, 프랑스문학, 스페인 및 포르투갈문학, 이탈리아문학, 기타제문학의 자료를 포괄</li> <li>- 문학자료의 전반적인 집서수준을 4단계(연구수준)로 설정하고, 하위주제에 따라 1~4단계를 선택적으로 적용</li> </ul> </li> <li>• 기본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이론, 문장작법과 수사학, 문학사와 평론 등을 다룬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등의 기본자료</li> <li>- 기술된 언어를 불문하고 4단계(연구수준)까지 수집</li> <li>- 다만 세계 및 각국의 문학전집은 영미,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수집</li> </ul> </li> <li>• 각국의 문학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벨문학상 및 국제적 인지도와 신뢰성이 높은 수상작을 원작언어로 수집</li> <li>-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수집대상을 선정할 때는 리뷰지, 신간안내서, 작품집 해설 등의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엄선하여 수집</li> </ul> </li> <li>• 세계 각국의 주요 문학가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형식별로 구분하여 최대한 수집</li> </ul> </li> <li>• 5단계(망라적 수준) 수집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고대 및 현대 문학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한 자료, 외국에서 한국의 문학세계를 연구한 자료, 특정 작가의 작품세계를 분석 또는 비평한 자료</li> </ul> </li> </ul>
장서개발 세부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학을 비롯한 중국 및 일본, 영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및 포르투갈, 이탈리아, 러시아 문학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 수준에서 수집</li> <li>• 문학의 기본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 작법과 수사학, 문학사와 평론 등을 다룬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등</li> <li>- 언어를 불문하고 최대한 수집</li> </ul> </li> <li>• 문학전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미,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집</li> </ul> </li> <li>• 문학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창작력이나 상상력을 기준으로 교육적 및 문학적 가치가 풍부하고 영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명작을 우선적으로 선정</li> </ul> </li> <li>• 수상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작 중 노벨문학상을 비롯한 국제적 인지도와 신뢰성이 높은 수상작을 집중적으로 수집</li> </ul> </li> <li>• 한국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의 고대 및 현대 문학작품, 외국에서 한국의 문학세계를 연구한 자료, 특정 작가의 작품세계를 분석 또는 비평한 자료는 최대한 수집</li> </ul> </li> <li>• 세계 주요 문학가의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를 막론하고 문학형식별로 최대한 수집</li> </ul> </li> <li>• 인터넷 소셜 및 판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단에서 인정받은 수상작을 제외한 작품 및 선정성이 지나치거나 감상적인 작품은 수집하지 않음</li> </ul> </li> </ul>

#### 4.2 국외문학관의 수집정책

국외문학관의 수집정책 사례분석을 위하여 동아시아 문학관에 비해 그 유형이 국내문학관과 유사한 영미권 문학관을 중심으로 수집정책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은 영미문학 작가를 다루는 문학관 중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70개의 문학관이다. 그 중 홈페이지에 수집정책이 공개되어 있는 두 곳의 문학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확보하였고, 홈페이지에 수집정책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17년 5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각 문학관 홈페이지의 문의하기(contact us) 또는 이메일 질의를 통해 수집정책 원문 제공을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14개의 문학관에서 수집정책 원문을 제공하였다. 수집정책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문학관은 영국

8개, 미국 5개, 이탈리아 1개로 <표 5>와 같다. 각 문학관의 수집정책의 분석은 원문의 구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의역하였으며 각 구성요소의 목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요약하였다.

첫째, 찰스 디킨즈 박물관(Charles Dickens Museum, 이하 CDM)은 찰스 디킨즈를 위한 개인문학관으로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다. 문학관은 디킨즈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할 무렵인 1837년부터 2년간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한 곳으로, 디킨즈 협회(The Dickens Fellowship)가 1922년 인수하여 3년 뒤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찰스 디킨즈 박물관은 홈페이지에 수집정책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수집정책은 1) 박물관의 목적 진술, 2) 현재 수집된 컬렉션에 대한 개요, 3) 향후 수집을 위한 주제 및 우선순위, 4) 합리적 경영과 처분을 위한 주제 및 우

<표 5> 분석대상 해외문학관

	국가	문학관명	수집정책	
개인 문학관	영국	Charles Dickens Museum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hakespeare birthplace trust	SBT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2014-2019)	
		Newstead Abbey	NA ONLY NCMG CDP 2013	
		The Samuel Johnson Birthplace Museum, Lichfield	SJBM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 2015	
		Jane Austen's House Museum	JAHM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	
		Dove Cottage and the Wordsworth Museum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March 2016	
		Milton's Cottage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	
	미국	Hemingway-Pfeiffer Museum and Educational Center	Hemingway-Pfeiffer Center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The Mark Twain House and Museum	Mark Twain House Collections Policy 2017	
		Historic Hudson Valley	Historic Hudson Valley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FINAL 2014	
		Thornton W. Burgess Society	Thornton W. Burgess Society Collection policy	
		General Lew Wallace Study and Museum	GLWSM Collection Policy Draft	
	종합 문학관	이탈리아	Keats-Shelley House(KSH)	Keats-Shelley House Rome - policy
		영국	Chawton House Library	Chawton House library Collections Management

선순위, 5) 수집 제한사항, 6) 다른 박물관의 수집정책, 7) 정책 검토 절차, 8)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수집, 9) 수집 절차, 10) 약탈, 11) 유해(human remains)의 반환 및 배상, 12) 아카이브 관리, 13) 처분 절차의 13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셰익스피어 버스플레이스 트러스트(Shakespeare Birthplace Trust, 이하 SBT)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국가적 기념물로 보존하기 위해 1847년 영국 스타포드어폰에이번(Stratford-upon-Avon)에 설립된 독립적 교육 자선단체이다. SBT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한 연구 및 지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셰익스피어 협회(International Shakespeare Association)의 본사로서 셰익스피어 생가, 박물관, 도서관, 역사적 기록, 그림, 사진 등의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SBT의 수집정책은 5년 단위로 계획되며 현재 2014년 5월에 승인되어 2019년까지 유지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컬렉션관리정책은 장서개발정책, 컬렉션정보정책(collections information policy), 컬렉션 접근정책(collections access policy), 컬렉션관리 및 보존정책(collections care and conservation policy)의 다섯 가지 정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는 위의 다섯 정책 중 장서개발의 구성요소로 1) 기존 컬렉션, 2) 컬렉션의 향후 수집 기준, 3) 합리적 경영 및 처분, 4) 수집 제한사항, 5) 다른 기관의 수집정책, 6) 정책 검토 절차, 7) 정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집, 8) 수집 절차, 9) 약탈, 10) 소장품과 유해의 반환 및 배상, 11) 처분 정책의 11개 구성요소와 전체 정책의 개요에 해당하는 1) 소개, 2) 목적

진술, 3) 법적 및 윤리적 요건을 포함하여 14개의 구성요소이다.

셋째, 뉴스테드 애비(Newstead Abbey, 이하 NA)는 영국 노팅험에 위치하며 1170년 무렵 헨리 2세가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원으로 건설하였다. 이후 저택으로 개조되어 1540년에 바이런가(Byron family)가 인수하였고 현재 노팅엄 시에서 소유하고 있다. NA는 저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후부터 지금까지 수세기에 걸쳐 수집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NA의 수집정책은 1) 컬렉션의 간략한 역사, 2) 현재 보유 컬렉션, 3) 수집의 목적, 4) 수집 제한사항, 5) 현재 수집원, 6) 외부 기관과의 관계, 7) 대여, 8) 수집분야의 8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영국 스태포드셔(Staffordshire) 리치필드(Lichfield) 중심에 위치한 사무엘 존슨 생가 박물관(Samuel Johnson Birthplace Museum, 이하 SBJM)은 1901년에 개관한 사무엘 존슨의 전기 박물관이다. 리치필드 시의회(Lichfield City Council, 이하 LCC)에 속한 기관으로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을 최초로 작성했던 사학자이자 작가였던 사무엘 존슨의 삶과 작품에 대해 전시하고 있다. 1) 본 수집정책과 기관의 다른 정책(계획)과의 관계, 2) 컬렉션의 역사, 3) 소장 컬렉션의 개요, 4) 향후 수집을 위한 주제 및 우선순위, 5) 합리적 경영과 처분을 위한 우선순위, 6) 소장품의 수집과 처분을 위한 법적 윤리적 체계, 7) 다른 박물관의 수집정책, 8) 아카이브 소장품, 9) 수집, 10) 유해(human remains), 11) 생물학 및 지질학 자료, 12) 고고학 자료, 13) 예외사항, 14) 약탈, 15) 유해와 물건의 반환 및 배상, 16) 처분절차의 16개 요

소로 구성된 수집정책은 2015년 4월 20일 승인되었고 재검토 예정일은 2019년 4월이다.

다섯째, 제인 오스틴 하우스 박물관(Jane Austen's House Museum, 이하 JAHM)은 영국 햄프셔(Hampshire)의 차우톤(Chawton) 마을에 있는 작은 독립 박물관이다. 제인 오스틴은 1809년부터 1817년까지 8년간 마지막 생을 이 집에서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하며 보냈다. JAHM은 제인 오스틴에 관한 컬렉션을 개발하고 홍보 및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JAHM 수집정책은 1) 본 수집정책과 기관의 다른 정책(계획)과의 관계, 2) 컬렉션의 역사, 3) 소장 컬렉션의 개요, 4) 향후 수집을 위한 주제 및 우선순위, 5) 합리적 경영과 처분을 위한 우선순위, 6) 소장품의 수집과 처분을 위한 법적 윤리적 체계, 7) 다른 박물관의 수집정책, 8) 아카이브 소장품, 9) 수집, 10) 유해, 11) 생물학 및 지질학 자료, 12) 고고학 자료, 13) 예외사항, 14) 약탈, 15) 처분절차의 총 15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섯째, 도브 코티지와 워즈워스 박물관(Dove Cottage and the Wordsworth Museum, 이하 DCWM)은 워즈워스 트러스트(The Wordsworth Trust, 이하 WT)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워즈워스의 창작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1799-1808년)에 그가 살았던 집 도브 코티지(Dove Cottage)안에 워즈워스가 사용하던 가구 및 기념품이 전시되면서 컬렉션이 갖춰지기 시작하였다. DCWM 수집정책 구성요소는 위의 JAHM의 구성요소와 동일하다.

일곱째, 밀턴스 코티지(Milton's Cottage, 이하 MC)는 잉글랜드 남부 버킹엄셔(Buckinghamshire) 주의 차르폰트 자일스(Chalfont St Giles)에

위치한 건물로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 명작 서사시 실낙원(Paradise Lost)를 완성하고 속편 복낙원(Paradise Regained)의 영감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 박물관은 존 밀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컬렉션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3개의 박물관 자료실에서 밀턴의 삶, 작업 및 그의 삶에 끼친 영향력들을 알 수 있는 희귀한 서적, 그림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MC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는 1) 목적 진술, 2) 소장 컬렉션의 개요, 3) 향후 수집 주제, 4) 합리적 경영과 처분을 위한 주제 및 우선순위, 5) 수집과 처분을 위한 법적 체계에 대한 정보의 다섯 가지 요소이다.

여덟 번째, 아칸소(Arkansas)에 위치한 헤밍웨이-파이퍼 박물관과 교육센터(Hemingway-Pfeiffer Museum and Educational Center, 이하 HMEC)는 아칸소 주립대학 소속으로 1999년 7월 헤밍웨이의 100번째 탄생을 기념하며 설립되었다. HMEC의 수집정책은 2013년 1월에 개정되었으며 1) 사명 진술, 2) 목적, 3) 권한 진술, 4) 윤리 강령, 5) 컬렉션의 범위, 6) 컬렉션의 유형 정의, 7) 수집, 8) 수집 절차, 9) 처분 절차, 10) 이해의 상충, 11) 대여, 12) 보험, 13) 컬렉션 및 기록에의 접근, 14) 컬렉션 자료의 재생산 및 사진촬영, 15) 컬렉션 관리의 1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번째, 마크 트웨인 박물관(Mark Twain House and Museum, 이하 MTHM)은 하트포드(Hartford)에 위치하며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사무엘 랭혼 클레멘스(Samuel Langhorne Clemens)가 직접 설계를 맡겨 건축한 집이다. 이 박물관은 트웨인의 유산과 작품, 삶을 연구하고 후대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THM의 수집정책은 2017년 3월 23일 승인되었으며 1) 사명 진술, 2) 목표 및 목적, 3) 역사, 4) 권한의 위임, 5) 컬렉션의 범위 및 유형, 6) 수집과 인수, 7) 처분, 8) 대여, 9) 보존, 10) 접근·보안·컬렉션의 활용 및 관련 정보, 11) 컬렉션 목록 및 보험, 12) 컬렉션에 관련된 윤리사항, 13) 수집정책의 유지, 14) 서식의 14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열 번째, 히스토리 허드슨 밸리(Historic Hudson Valley, 이하 HHV)는 뉴욕 주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County, New York)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비영리 문화단체이다. 1951년 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 Jr.)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테마는 4가지로 '록펠러 가문의 유산(Rockefeller family legacy)',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 '슬리피 할로우 지역의 할로윈(halloween in sleepy hollow country)', '북부 식민지 노예제도'이다. 설립 주체인 록펠러 가문과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워싱턴 어빙을 주요 테마로 소개하고 있다. HHV의 수집정책은 2014년 2월 26일 승인되었으며 1) 사명 진술, 2) 목적 진술, 3) 수집, 4) 컬렉션 수집, 5) 대여, 6) 처분, 7) 보험, 8) 보유기록조사, 9) 컬렉션과 기록에의 접근, 10) 기록의 10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열한 번째, Thornton W. Burgess Society, 이하 TWBS)는 자연주의자이자 작가였던 버제스의 작품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그의 일생과 작품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 활동을 위해 1976년에 설립된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메사추세츠 샌드위치(Sandwich, Massachusetts)의 쇼미 호수(Shawme Pond)에 위치해 있다.

TWBS는 목적 및 컬렉션의 두 요소로 수집정책을 구성하였다.

열두 번째, 제너럴 루 월러스 스터디 앤 뮤지엄(General Lew Wallace Study and Museum, 이하 LWSM)은 인디애나주 크로퍼즈빌(Crawfordsville)에 위치해 있다. 이 박물관은 군인, 작가, 발명가, 예술가, 외교관 및 정치인이었던 루 월러스의 삶과 그의 소설인 벤허(Ben-Hur)를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러스가 소유한 약 1,200권의 책, 군복, 터키 술탄의 딸의 초상화를 포함한 예술품, 악기 및 월러스가 발명한 낚시대 등을 전시하고 있다. LWSM의 수집정책은 1) 사명진술, 2) 정책의 목적, 3) 컬렉션 범위, 4) 권한의 진술, 5) 윤리강령, 6) 용어의 정의 및 약어, 7) 수집 가이드라인, 8) 기록 및 보존소, 9) 컬렉션의 보존 및 관리, 10) 수집, 11) 처분, 12) 대여, 13) 컬렉션 활용의 1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열세 번째, 키츠-셸리 하우스(Keats-Shelley House, 이하 KSH)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문학관으로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John Keats)와 퍼시 셸리(Percy Bysshe Shelley)를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츠와 셸리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바이런(Byron), 워즈워스(Wordsworth),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 엘리자베스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등의 작가들에 대한 컬렉션도 소장하고 있다. KSH의 수집정책은 1) 박물관의 목적 진술, 2) 기존 컬렉션(수집 대상 및 주제 포함), 3) 향후 수집정책 관리 기준(수집 대상 및 주제 포함), 4) 수집 제한사항, 5) 다른 박물관의 수집정책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열네 번째, 차우톤 하우스 도서관(Chawton House Library, 이하 CHL)은 햄프셔 차우톤(Chawton, Hampshire)에 위치한 곳으로 4백년이 넘는 건물이다. 이 도서관은 현재 초기 여성문학 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early women's writing, 1600-1830)로 활용되고 있으며 9천권이 넘는 책과 매뉴스크립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CHL의 수집정책은 1) 컬렉션 소개, 2) 수집정책, 3) 컬렉션 관리, 4) 제적 및 처분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4.3 국내외문학관 수집정책 사례 분석 결과

문학관 수집정책 구성요소의 사례분석을 위해 국내외 문학관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집정책원문을 살펴보았다. 국내문학과의 수집정책 사례로는 세계여성문학관의 자료 선정에 관한 내규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중 주제별 장서개발지침을 참고하였으며 국외의 경우 14곳의 해외문학관 수집정책 원문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수집정책의 요소를 5가지 주제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주제에 포함될 구성요소를 선정하였다. 구성요소는 수집정책 원문이 채택한 요소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원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여 선정하였다. 각 기관별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에 따라 상위요소로 제시되기도 하고 하위요소로 제시되는 등, 개별 문학관이 그 내용을 어떤 요소 안에 기술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구성이 달라졌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어떤 구성요소 아래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구성요소가 상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원문 구성요소의 명칭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요소에 포함된 내용을 기준으로 요소를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총 25개의 재구성된 요소를 도출하였다. 재구성된 구성요소가 포함하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사례분석을 통한 주제별 수집정책 구성요소의 내용

주제	주제별 수집정책 구성요소	포함내용
개요	기관 소개	- 기관의 역사, 운영 방법
	기관의 목적 및 사명 진술	- 기관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
	권한 진술	- 모 기관에 대한 진술 - 컬렉션 개발, 수집정책 변경 및 관리의 권한
	수집정책의 목적 진술	- 기관의 목적과 사명을 토대로 수집 및 컬렉션 관리의 책임 부여
	법적 및 윤리적 요건	- 수집과 처분 또는 기관 운영을 위해 준수하는 현행법, 지침, 윤리강령에 대한 진술
	용어의 정의	- 수집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컬렉션	컬렉션 목적 및 사명 진술	- 수집을 통한 컬렉션 구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적 진술
	컬렉션 역사	- 개관부터 현재까지 시기별 컬렉션 구축에 대한 진술

주제	주제별 수집정책 구성요소	포함내용
컬렉션	소장 컬렉션의 개요	- 현재 보유 컬렉션에 대한 소개 - 컬렉션의 범주(영역), 소장품 유형 - 아카이브 소장품에 대한 진술
	컬렉션 활용	- 컬렉션 소장품의 재생산 및 활용에 대한 원칙
	소장품의 반환 및 배상	- 약탈품, 유해 등 특정 소장품에 적용하는 원칙 - 반환 및 배상의 원칙
	대여	- 기관에서 외부로의 대여 원칙 - 외부에서 기관으로의 대여 원칙
	컬렉션 관리	- 컬렉션의 보존 및 안전 보장(재해로부터의 보호,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등) - 접근권한 진술 - 주기적 목록작성 및 검토 - 물리적 보존처리, 복원 - 컬렉션 관리의 예산 - 보안 관련 사항 - 아카이브 관리
수집 활동	향후 수집을 위한 우선순위 및 제한사항	- 향후 수집을 위한 주제 및 우선순위 - 수집 제한사항(수집하지 않는 주제나 유형, 수집방법 등)에 대한 진술
	수집분야 및 기준	- 수집범위 및 초점분야 - 시간적, 지리적 범위 포함 - 수집될 자료의 상태 및 조건
	다른 기관의 수집정책	- 불필요한 중복과 낭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타기관의 수집정책을 고려하고 협력함
	수집 예외사항	- 정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집은 매우 예외적인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함을 명시
	수집절차 및 일반적 원칙	- 수집의 대원칙 - 수집 방법에 따른 절차 및 원칙 제시 - 수집활동을 위해 따르는 법률, 지침 등 - 현재 수집원에 대한 기술: 수집의 주된 방법(구매, 기증 등) 및 선호하지 않는 방법 - 수집 의사결정과정 기술 - 수집절차에 따른 책임사항 기술
처분 활동	합리적 경영과 처분을 위한 주제 및 우선순위	- 복본, 불필요한 자료, 기관과 관련 없는 자료의 명시
	처분 정책	- 처분결정과정 - 처분의 방법(교환, 파기 등)별로 원칙과 기준 제시 - 처분 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반려된 경우를 구분하여 절차 설명
관리 및 운영 활동	수집정책 검토절차	- 정책을 최소 몇 년에 한번 검토하는지에 대한 명시
	아카이브 관리	- 아카이브 관리를 위해 준수하는 지침
	이해의 상충	- 이해상충 발생 시 우선순위 - 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원칙
	보험	- 컬렉션 또는 기관이 가입한 보험
	서식	- 대여 양식, 기부 증서 등의 서식



주제별로 재구성된 구성요소는 총 25개로 '개요' 6개, '컬렉션' 7개, '수집활동' 5개, '처분활동' 2개, '관리 및 운영활동'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 문학관이 수집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제언하기 위해 연구자별 수집정책 구성요소 분석결과와 국내외 문학관의 수집정책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는 모든 문학관이 수집정책에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요소'와 기관의 재량별로 채택할 수 있는 '선택요소'로 구분한다. 이 상의 분석결

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제시된 요소들 중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목적 및 사명 진술'은 문학관이 수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차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기관의 목적 및 사명 진술 요소는 정책의 가장 서두에서 수집정책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학관은 수집정책에 기술된 기존의 목적 및 사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 7> 수집정책 구성요소 분석 결과의 종합

	주제	구성요소
기본요소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목적 및 사명 진술</li> <li>• 법적 권한 진술</li> </ul>
	컬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컬렉션의 개요</li> <li>• 컬렉션 활용</li> <li>• 컬렉션 관리</li> </ul>
	수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수집을 위한 우선순위 및 제한사항</li> <li>• 수집분야 및 기준</li> <li>• 다른 기관의 수집정책</li> <li>• 수집절차 및 일반적 원칙</li> </ul>
	처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 정책</li> </ul>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정책 검토 절차</li> </ul>
선택요소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소개</li> <li>• 법적 및 윤리적 요건</li> <li>• 수집정책 목적 진술</li> <li>• 용어의 정의</li> </ul>
	컬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컬렉션 목적 및 사명진술</li> <li>• 컬렉션 역사</li> <li>• 소장품의 반환 및 배상</li> <li>• 대여</li> </ul>
	수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 예외사항</li> </ul>
	처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 경영과 처분을 위한 주제 및 우선순위</li> </ul>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카이브 관리</li> <li>• 이해의 상충</li> <li>• 보험</li> <li>• 서식</li> </ul>

둘째, '법적 권한 진술'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권한에 대해 명시하는 요소로써 수집정책 관리 및 기관 운영의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밝히고, 컬렉션 개발권한의 위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소장 컬렉션의 개요'는 문학관이 소장한 컬렉션의 종류와 범위, 유형을 설명하는 요소로써 컬렉션 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문학관이 어떤 주제의 컬렉션을 구축하고 수집활동을 실행해왔는지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수집활동에 앞서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컬렉션 소개에서 더 확장된 범위로써 소장 컬렉션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컬렉션 및 기능분석도 이 요소에 포함될 수 있다.

넷째, '컬렉션 활용'은 앞의 컬렉션 개요에서 소개한 소장컬렉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재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요소이다. 수집된 컬렉션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유형 즉, 컬렉션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나 아웃리치, 전시, 출판 등의 프로그램을 성문화하여 컬렉션의 잠재적 이용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컬렉션을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활용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수집의 근거를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컬렉션 관리' 요소는 문학관이 소장 중인 문학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한다는 측면과 기관내부 컬렉션 담당 직원들이 컬렉션의 유지·보존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수집정책의 기본 요소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후 수집을 위한 우선순위 및 제한

사항'의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문학관은 한정된 물리적 공간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므로 수집정책에 있어서 수집의 우선순위와 제한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수집을 위한 우선순위 및 제한사항 요소를 통해 문학관은 향후 5-10년간 수집하고자 하는 문학기록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수집하지 않을 문학기록의 유형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기증자 및 타 기관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문학관 중 소규모로 운영되는 개인문학관의 경우 수집정책에 수집의 우선순위와 제한사항을 설정하여 수집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수집분야 및 기준'은 문학관이 실제 문학기록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문학기록에 대한 수집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집정책 기본요소로 포함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다른 기관의 수집정책' 요소는 동일한 자료를 타 문학관과 중복 수집하는 낭비를 줄이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지역문학관은 개인문학관보다 더 큰 규모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경우 개인 문학관에서 기념하고 있는 작가에 대한 자료를 지역문학관과 같은 타 문학관에서 동시에 수집할 수 있다. 또 다른 문학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지식 없이 수집할 경우 중복된 수집이 발생하며 이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동일한 자료를 타 문학관과 중복 수집하는 낭비를 줄이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 요소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중복과 낭비, 이해상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 문학관과

의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아홉째, ‘수집절차 및 일반적 원칙’의 요소는 문학관이 수집정책에 명시된 수집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집활동을 하는 것은 모든 문학기록의 수집절차를 투명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이며 또한 법적·윤리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열 번째, ‘처분정책’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문학관이 수집정책에 처분 활동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소장 문학기록을 처분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기본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은 문학관의 자산인 문학기록을 영구적으로 제외시키는 활동이다. 수집이 다양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인 것처럼 처분 역시 수집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처분 결정은 수집 결정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고차원적인 숙고 끝에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문학관은 수집정책에 처분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소장 문학기록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열한 번째, ‘수집정책 검토 절차’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문학관이 수집정책 검토 절차를 수집정책의 기본 요소로 채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집정책을 검토하고, 컬렉션을 분석하여 소장 컬렉션의 장단점을 진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는 수집활동의 질적 향상과 문학관 수집정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개인문학관과 지역문학관의 구분 없이 국내의 모든 문학관이 수집정책을 수립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수집정책 구성요소의 기본틀을 제시하고자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헵, 슈워트리 히와 리드, 필립스, 디얼스타인이 제시한 메뉴스크립트 수집기관의 수집정책 구성요소 연구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구성요소와 하위요소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용어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미가 통하는 요소들을 묶어 ‘개요’, ‘컬렉션’, ‘수집활동’, ‘처분활동’, ‘관리 및 운영 활동’의 다섯 가지로 주제를 선정해 각 주제별로 해당하는 구성요소를 연구자별로 나열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 문학관의 수집정책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문학기록의 수집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세계여성문학관의 자료 선정 내규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참조하였으며, 국외 문학관은 14개의 영미권 문학관을 대상으로 수집정책 원문을 확보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각 기관별로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어떤 요소 아래에 기술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대상 문학관의 수집정책 원문의 구성요소를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27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5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문학관의 수집정책 수립 시 채택할 수 있는 기본요소 및 선택요소를 제언하였다. 구성요소별로

이론분석과 사례분석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기본요소 11개와 선택요소 14개를 확정하였다.

문학관은 매뉴스크립트 수집기관으로서 문학기록의 관리 및 활용이 가장 큰 목적이다. 문학기록 관리는 체계적 수집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목표는 명문화된 수집정책의 수립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106개의 국내 문학관 중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문학기록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문학관이 활용할 수 있는 수집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문학관 관련 연구들이 국내 문학관의 특정 개별사례를 중심으로 수집정책을 제시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문학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관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집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다수의 국외 문학관 수집정책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사례분석에 있어 국내 문학관의 수집정책 사례가 풍족하지 못하고 국외 문학관 역시 영어권 국가의 문학관으로 한정하여 연구대상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시작으로 문학기록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수집정책안이 수립되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강경무 역.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서울: 진리탐구.
- 국립중앙도서관. 2014.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나운지. 2016. 『한국 근현대문학의 가치 계승을 위한 문학관 운영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세계여성문학관 [online]. [cited 2017.12.13]. <<http://wowlic.sookmyung.ac.kr>>.
- 신동희, 김유승. 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30.
- 양서희. 2011. 『지역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문학기록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오향녕 역. 2005. 『기록학의 평가론』. 서울: 진리탐구.
- 유영산. 2005. 『매뉴스크립트 수집절차 체계화 방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유은지. 2007. 『문학관을 활용한 문학 진흥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전공.
- 이명호, 오삼균, 도슬기. 2015. 라키비움(Larchiveum) 관점에서 본 국내 문학관의 운영실태와 과제

- 국내 문학관의 기능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139-159.
- 정서지. 2016. 『문학관과 문학기록의 현황 및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 전공.
- 조용성. 2009. 『구술기록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위원회의 면담조사기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전공.
- 조정희. 2015. 『경북지역 문학관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주선영. 2015. 『무용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 과학전문대학원, 문화자원기록전공.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수연. 2005. 『기록물 수집정책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 대학원.
- Charles Dickens Museum. Charles Dickens Museum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nline]. [cited 2017.10.12]. <<https://dickensmuseum.com/pages/policy-documents>>.
- Chawton House Library [online]. [cited 2017.5.24]. <<https://chawtonhouse.org/>>.
- Dearstyne, Bruce William, 2000. *Managing Historical Records Programs: A Guide for Historical Agencies*. Rowman and Littlefield.
- Dove Cottage and the Wordsworth Museum [online]. [cited 2017.5.22]. <<https://wordsworth.org.uk/home.html>>.
- Folger Shakespeare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nline]. [cited 2017.5.25]. <[https://folgerpedia.folger.edu/\\_mw/index.php?title=Collection\\_development\\_policy&\\_ga=2.91624986.1034414636.1512383783-474145926.1511475596](https://folgerpedia.folger.edu/_mw/index.php?title=Collection_development_policy&_ga=2.91624986.1034414636.1512383783-474145926.1511475596)>.
- General Lew Wallace Study and Museum [online]. [cited 2017.6.12]. <<https://www.ben-hur.com/>>.
- Hemingway-Pfeiffer Museum and Educational Center [online]. [cited 2017.5.26]. <<http://hemingway.astate.edu/contact/>>.
- Historic Hudson Valley [online]. [cited 2017.5.29]. <<http://www.hudsonvalley.org/>>.
- ICLM(International Committee for Literary Museums) [online]. [cited 2017.6.1]. <<http://network.icom.museum/iclm/>>.
-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online]. [cited 2017.6.1]. <<http://icom.museum/>>.
- Jane Austen's House Museum [online]. [cited 2017.5.22]. <<https://www.jane-austens-house-museum.org.uk/>>.
- Keats-Shelley House [online]. [cited 2017.5.17]. <<http://www.keats-shelley-house.org/>>.
- Mark Twain House and Museum [online]. [cited 2017.5.22]. <<https://marktwainhouse.org/>>.

- Milton's Cottage [online]. [cited 2017.5.24]. <<http://www.miltonscottage.org/>>.
- Ministry of Education, Notific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Technology [online]. [cited 2016.9.20]. <<http://ncic.kice.re.kr/nation.dwn.ogf.inventoryList.do>>.
- Newsteadabbey [online]. [cited 2017.5.24]. <<http://www.newsteadabbey.org.uk/>>.
- Phillips, Faye.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s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1): 30-42.
- Samuel Johnson Birthplace Museum [online]. [cited 2017.5.22]. <<http://www.samueljohnsonbirthplace.org.uk>>.
- Schvirllich, Anne., Reed, Babara and Ellis, Judith, ed. 1987.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Keeping Archives*. ASA.
- Shakespeare Birthplace Trust [online]. [cited 2017.5.9]. <<https://www.shakespeare.org.uk/>>.
- SPECTRUM [online]. [cited 2017.10.12]. <<http://collectionstrust.org.uk>>.
- Thornton W. Burgess Society [online]. [cited 2017.6.8]. <<http://www.thorntonburgess.org/>>.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Jung-heul. 2015. *A Study on the Utilization Situation and its Improvements in the Local Literature Hall for the Gyeongbuk region*. Master dis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ho, Young-Sung. 2009. *A Study on the Collecting Policy of Oral History Archives*. Master di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Han, Soo-Yeon. 2005. *A Study on the Components of Archival Collection Policy*. Master diss. Ewha Womans University.
- Jeong, SeoJi. 2016. *Current Status and Application of Literature Houses and Literarly Records*. Master dis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Joo, Sun Yung. 2015. *A Study on Dance Archive's Records Collecting Methods*. Master diss. Myoungji University.
-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2008. *Terminology Dictionary of Records Management*. Seoul: Yeoksabipyungsa.
- Kang, Kyoung-Moo. 2002. *Selection of Archives and Manuscripts*. Seoul: Jilritamgu.
- Na, Yoonji. 2016. *Management plans for the literary museum to carry on the value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Master diss. Korea University.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4.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Oh, Hang-Nyeong. 2005. *Evaluation of Records Management*. Seoul: Jilritamgu.
- Sinn, Donghee and You-seung Kim. 2016.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6(3): 1-30.
- World Women's Literature Center [online]. [cited 2017.12.13].  
〈<http://wowlic.sookmyung.ac.kr/>〉.
- Yang, Seo-Hee. 2011. *A Study on Literature Records Management for Invigoration of Local Literature Museum*. Master diss. Myoungji University.
- Yi, Myongho, Sam-Gyun Oh, and Seulki Do. 2015. "Study on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House: Larchiveum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139-159.
- Yoo, Eun-Ji. 2007. *A Study on the Literature Advancement Plan with the Literature House*. Master diss. Dankook University.
- You, Young San. 2005.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Manuscript Collecting Process-Focus on Archives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 Master diss. Myoungji University.